

부산 기장군 토박이 해녀의 전통성과 지역성*

—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황 경 숙**

차 례

- | | |
|----------------|--------------------|
| 1. 들어가기 | 4. 토박이 해녀와 전복 진상제도 |
| 2. 기장의 잠부와 침수군 | 5. 토박이 해녀의 잠수 어로 |
| 3. 기장의 잠녀와 포녀 | 6. 나가기 |

국문초록

이 글은 부산 지역 토박이 해녀의 역사적 고찰을 위한 선행 연구로 조선후기 기장의 토박이 해녀[잠부와 잠녀]의 전통성과 지역성을 밝히고자 했다. 조선후기 심노승의 『남천일록』을 중심으로 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라시대로부터 조선말엽까지 기장지역에는 잠부와 잠녀가 존재했고, 이들의 생산 활동양상은 현재 기장지역 토박이 해녀와 동일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조선시대 시행되었던 전복 진상제도 속에서 시대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06463)

**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적 차이점을 엿볼 수 있는데, 기장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잠부 [진상군과 침수군]가 진상용 전복 채취를 전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장지역에서는 예로부터 곽암중심의 미역채취가 이루어지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잠녀를 채곽잠녀와 채복잠녀로 나누는 관행이 달리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조선후기까지 기장지역 토박이 해녀의 물질 방식은 보조 장치인 ‘생명줄’을 이용한 방식으로 당시 제주도 해녀의 잠수 어로 기술에 뒤쳐져 있었는데, 이러한 지역적 편차는 19세기 말엽부터 기장지역에 유입된 제주도 해녀들의 영향으로 잠수 어로 기술이 향상되면서 상호 동질화되었다.

주제어 : 토박이 해녀, 잠부, 침수군, 진상군, 채복군, 잠녀, 포녀, 채복잠녀, 채곽잠녀, 도움줄

1. 들어가기

제주도 해녀가 우리나라 해녀를 대표할 만큼 잠수 기술과 수중 어로 기술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우리나라 내륙 연안의 해녀문화가 제주도 해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15세기-16세기에는 제주도 출륙 포작인들이¹⁾, 19세기 말-20세기에는 제주도 출가해녀들이²⁾ 내륙 연안에 유입되어 내륙 연안의 해녀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내륙 연안에서도 일찍이 해녀들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각 지역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해녀문화를 형성, 전승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1) 양정필, 「조선전기 정부의 제주도 출륙 포작인 인식과 정책」, 『탐라문화』 제67호, 2021.

2) 안미정, 「해방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적 고찰」, 『탐라문화』 제37호, 2010.

내륙 연안의 해녀를 달리 지선 해녀, 지방 해녀, 지역 해녀, 토박이 해녀라고 지칭한다. 그런데 이들 용례들은 각기 내륙 연안의 해녀를 통칭하는 명칭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다. 지선 해녀는 초기 해녀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명칭이나 일본식 표현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방 해녀와 지역 해녀는 제주도 해녀를 우리나라 해녀의 중심에 두는 지역적 편향성이 담겨있으며, 토박이 해녀는 그 지역 출신으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녀를 지칭하는 것으로 내륙 연안 해녀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근,현대 내륙연안의 해녀문화는 그 지역 토박이 출신 해녀와 타 지역에서 유입되어 정착한 토착 해녀들의 문화로 나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륙 연안의 전통 해녀를 토박이 해녀라 지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내륙 연안 출신으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며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했던 해녀를 토박이 해녀라고 지칭하고자 한다.³⁾

그간 우리나라 해녀문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주로 제주도 해녀문화에 국한되어 있었다. 각 지역 토박이 해녀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륙 연안의 토박이 해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근, 현대 그 지역 해녀문화에 대한 논의로 연구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다. 토박이 해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많지 않았기에 그 지역 토박이 해녀의 시대적 변화과정에 주목하지 못한 것이다. 각 지역 토박이 해녀의

3) 서남해안 일대에서는 그 지역 토박이 해녀를 ‘무레꾼’이라 칭한다.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명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레꾼’의 어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물에끼[무레끼]’는 물의 것, 즉 바다를 관장하는 용신의 것이라는 의미로 여겨진다. 이에 따르면 ‘무레꾼’은 바다 신이 관장하는 해산물과 해조류를 채취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원래는 ‘물에끼꾼’이었던 것이 ‘무레꾼’으로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장에서는 해산물과 해조류를 ‘물에끼[무레끼]’, 잠수로 ‘물에끼’를 채취하는 것을 ‘물에끼[무레끼] 한다.’라고 칭한다. 서남해안과 동남해안에서 공통적으로 해산물과 해조류를 ‘물에끼[무레끼]’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무레꾼’을 내륙 연안의 토착 해녀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상정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나, 동남해안 일대에서 ‘무레꾼’이라는 용례가 조사 보고된 바 없어,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된다.

전통성과 지역성을 밝히는 작업은 쉽지 않다. 관련 문헌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기장에서 1801년 2월에서 1806년 6월까지 유배 생활을 하며 보고들은 바를 일기로 남겼던 심노승의 『남천일록』에 주목했다. 이 일록(日錄)에는 당시 기장민들의 일상적 삶이 곳곳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선후기 기장에는 남자 나잠어업인인 잠부와 잠부 중 방군(榜軍)으로 군役に 소속되었던 침수군, 여자 나잠어업인인 잠녀[포녀]가 다수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여지도서』 『각사등록』 등 각종 사료를 통해서 기장현의 전복 진상제도와 이들 토박이 해녀와의 관련 여부를 추적해 볼 수 있는 단서도 찾을 수 있었다.

이 글은 기장의 토박이 해녀문화는 근,현대 이 지역에 유입된 제주도 해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라시대로부터 조선후기까지 이어져 왔던 이 지역 토박이 해녀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데서 출발했다. 기장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해녀 수가 가장 많은 곳이고, 해녀촌과 해녀교실 등 해녀문화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⁴⁾ 그런데 정작 기장 토박이 해녀의 전통성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제주도 출가 해녀를 이 지역 토박이 해녀의 모태로 여기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에 이 글은 부산 기장군 토박이 해녀문화의 역사적 고찰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먼저, 조선시대 기장⁵⁾ 토박이 해녀의 존재양상과 그 전통성을 규명하고,

4) 부산광역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기장의 해녀(나잠어업인)은 2021년 기준 길천(1명)·월내(8)·임랑(2명)·문동(36명)·문중(37명)·칠암(14명)·신평(16명)·동백(53명)·이동(41명)·이천(36명)·학리(40명)·두호(23명)·월전(28명)·대변(32명)·신암(35명)·서암(22명)·공수(55명)·동암(48명)으로 부산의 나잠어업인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5) 기장군은 삼한시대 갑화양곡이라 불렸던 곳으로 신라 지증왕 6년(505)에 갑화양곡현, 경덕왕 16년(757)에 기장현이 되었다. 고려 공양왕 3년(1391)에는 기장군으로, 조선시대 태조 3년(1394)에는 다시 경상도 기장현으로 개정되었는데, 선조 32년(1599)에 폐현되었다가 광해군 9년(1617)에 복원되어 고종 32년(1895)에는 동래부 기장군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이 재편되면서 기장군은 동래군에 소속되었다가, 1973년에 동래군이 폐지되자 양산군에 병합되었다가 1995년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동시대 여타 지역 토박이 해녀문화와 변별되는 기장 토박이 해녀문화의 지역적 특성도 밝혀보고자 한다. 이 글이 기장 토박이 해녀 문화, 나아가 부산 토박이 해녀문화의 전통성과 지역성을 밝히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2. 기장의 잠부와 침수군

조선시대 기장을 비롯한 내륙연안 일대에 토박이 해녀[잠부와 잠녀]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제주도를 비롯해 내륙연안의 포구마을 대부분은 전복을 진상해야 했던 곳이었고, 전복은 해녀의 물질 없이는 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전하는 각 지역 해녀문화는 그 지역 토박이 해녀문화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인데, 이에 주목하지 못 했던 이유는 이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노승의 『남천일록』은 조선 후기 기장의 토박이 해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토박이 해녀의 생산 활동양상을 엿볼 수 있어 주목된다. 먼저, 심노승이 무지포[지금의 대변과 연화리 일대]에서 만난 잠부와 침수군에 대한 기록을 살펴본다.

①주인이 말하기를 갯가에 전복 채취가 이루어지니 놀러가자 하였는데, 가을이 와서 오랫동안 마음에 있었다. 날마다 바람이 일어 나가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적당히 바람이 없었다. 이런 일은 이와 같아, 헛되이 가지는 것이 불가하여 문득 옳은 마음에 도달하였는데, 내가 말하기를 “그렇구나”라고 하였다. 식사 후 주인과 함께 김생윤군과 아이들 무리도 따랐고, 득노와 다 함께 출발하였다. 마을을 지나니 마침 이노인이 와서 역시 따랐다. 무지포(無知浦)에 도착하여 주인 무덤을 돌보던 중이 오후

기장군이 되었다.

반상을 차리고 주인이 잠부(潛夫)를 초대하였는데 “곧 전복을 캐기 위해 다 죽도로 들어갈 뿐이다.” 라고 말했다. 섬[죽도]은 해안가에 떨어져서 부르면 응대할 수 있다. 배를 타고 잠부를 따라 섬에 들어갔다. 어림잡아 사방이 수 백보 족하였고 돌로 둘러싸여 있었다. 가운데는 죽전이 있고, 멀리 바라보니 심히 광활하였다. 섬을 돌아드니 잠부 수 십인이 뜨거운 태양 아래 누워 있었다. 이 노인이 먼 중 수임과 관계하여 캔 전복의 가격을 말하게 하였다. 잠부 중 꽤거리의 우두머리가 고통의 기색을 보이면서 완고하게 풀었다. 내가 이르기를 강하게 그것을 가지고자 아니하였다. 따라서 돌아오는데 잠녀가 낙지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8문에 4개를 사서 돌아와 마을 집에 이르렀다. 국을 만들기 위해 삶으니 맛이 자못 좋았다. 잠부 무리는 이 노인을 떨치고 돌아갔는데, 두려움이 들어서 오는 길을 따라 전복과 소라를 약간 가지고 왔다.⁶⁾

②포구를 유람하기 위해 동배들과 쌀을 각출하였다. 나는 주인과 함께 김생, 안생, 박문백과 같이 나갔다. 선두포에 이르니 주사대장 김생은 출타하였다. 병선 감관 엄광릉은 이름 있는 사람으로 일찍이 팔십이 집에 있을 때 가까운 이웃으로 왕래한 사람이다. 술잔을 기다리니 잠부(潛夫)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이들은 전복채취를 계획하고 있었다. 작은 배를 얻어 관동을 같이 실으니 때는 바람 하나 없는 낮이라 거울의 면을 나가는 것 같아 편안하기가 재실과 같았다. -중략- 수 리를 가서 죽도에 올랐는데, 물에 잠겨 헤엄치는 큰 전복 한 마리를 보았고, 잡아 불로 지져 맛을 보니 제법 맛이 있었다. 또 소라와 홍합도 잡았다. 나와서 무지포에 이르니 촌가에는 오후 밥 짓는 연기가 올랐다.⁷⁾

①은 심노승이 죽도에서 전복을 채취하는 잠부에게 전복을 사고자 했으나 사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후 전복을 팔지 못해 미안했던 잠부가 전복과 소라를 심노승에게 가져다주었다는 내용이다. ②는 주사대장을 만나기 위해 선두포로 갔다가 그곳에서 전복을 채취하기 위해 모인 잠부를 보았고, 병선 감관을 대동한 일행들이 함께 죽도에 가서 전복, 소

6) 『南遷日錄』 四, 辛酉 九月初一日.

7) 『南遷日錄』 八, 癸亥 三月三十日.

라, 홍합을 먹었다는 내용이다. 내용에는 전복, 소라, 홍합을 잡은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을 고려하면 심노승이 만난 잠부들은 병선 감관이 주사대장을 대신해 심노승 일행을 응대하기 위해 불렀던 것으로, 이들이 죽도에서 여흥을 즐기는 심노승 일행에게 채취한 해산물을 대접한 것으로 보인다.

위 기록들을 통해 우선, 조선후기 기장에는 잠부가 상당수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잠부의 조업방식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들은 작업공동체를 형성해 조업했으며, 죽도가 이들의 주 어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잠부들의 조업문화는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 지금도 연화리 해녀들은 작업공동체를 형성해 함께 물질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도 역시 주 전복 어장으로 자리하고 있다.⁸⁾

다음은 침수군(沈水軍)에 대한 기록이다.

③침수군을 불러 생복(生鰯)을 사고자하니 비바람으로 채복이 불가능하다 하였다. 대신 말린 전복(乾鰯) 8개 있어 36문에 샀다. 일찍이 내가 들으니 오만동이(五萬同)가 양기에 좋은 약이라고 하는데, 동래와 기장 사이에서 나기도 했다. 침수군에게 물으니 “이것이[오만동]이 이곳 바다에서 나는 산물이나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조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약이 되지 않는 것이 없어 이것을 얻기 더욱 어렵습니다.” -중략- 주인여자에게 바쳐야 하는데 오만동이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침수군이 박수치며 웃으며 말하기를 “서울에서 온 양반 중에 구하지 않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 포구 사람들은 이것을 수중에 얻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도 낳고 딸도 낳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다려서 자녀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또 웃으며 말하기를 “자녀를 낳는 거 외에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것은 먹지 않고 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관에서 캐서 바치게 했더니 겨울에 십여 명의 침수군이 수일 동안 거의 얼어 죽을 뻔 했습

8) 근래 자연산 전복 수가 감소되어 전복 생산이 양식 전복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연화리어촌계에서는 죽도 인근 해안에서 전복 양식을 하고 있다.

니다. 10개를 얻어 관에 바쳤는데, 관도 역시 먹지 못하고 서울 대감 집으로 보냈습니다. 대감의 첩은 기뻐죽을 지경이었으나 포녀의 남편은 얻어 죽을 뻔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또 박수치며 깔깔대며 웃었다.⁹⁾

③은 심노승이 침수군에게 생전복을 사고자 했으나, 생전복을 사지 못하고 대신 건전복을 사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관의 명령으로 오만둥이를¹⁰⁾ 채취하다 곤혹을 치른 침수군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침수군은 관에 소속되어 있는 잠부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심노승이 무지포에서 만났던 침수군은 누구일까? 조선후기 기장의 잠부들의 삶과 활동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남천일록』에 나타난 잠부와 침수군의 관계, 침수군의 소속과 주 임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상좌병영과 관련된 기록에 의하면 침수군은 경상좌병영 소속 수군으로 진상용 전복 채취를 전담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경상좌병영지』에 ‘전복을 채취하는 군사’가 나오는데¹¹⁾, 이들을 『영사례』에는 침군(侵軍)으로 기재했고¹²⁾, 울산의 호적대장에는 침수군으로 기재했다.¹³⁾ 즉, 경

9) 『南遷日錄』 一, 辛酉 四月 初三日.

10) 『자산어보』에 오만둥이는 그 모양새와 생리가 남근과 유사하다하여 음충(淫蟲)이라 불렸으며, 양기를 돋우는데 효력이 있어 말린 오만둥이 가루를 약재에 넣어 함께 복용했다고 한다고 한다. (정약전·이청, 정명현 옮김, 『자산어보』, 서해문집, 2016, 127쪽.) 당시 ‘오만둥이’[동래와 기장 사이의 해안에 서식하는]가 기장의 토산품으로 소개된 바는 없지만, 심노승도 이를 알아 침수군에게 구하고자 할 만큼 꽤 유명했음을 알 수 있다.

11) 『경상좌병영지』 방물(方物), 공복(貢鰓). (울산광역시 중구, 『역주 경상좌병영 관련 문헌 집성』, 2014, 33쪽.)

12) “공복(貢鰓) 구폐전 600냥은 울산 동남쪽의 각 포구에 준다. 십삼식리(十三殖利)하여 1년의 이자 216냥을 침군이 전복을 켈 때 술과 안주로 관례에 따라 보내고, 또한 배지군관(陪持軍官)에게도 관례에 따라 보낼 것.” (울산광역시 중구, 위의 책, 2014, 48쪽.) 안미정 역시 선행연구에서 『영사례』의 침군은 경상좌병영지의 ‘전복을 채취하는 군사’를 지칭하는 공식 명칭으로 보았다. (안미정, 『이방인이 꽃 피운 울산의 해양문화, 해녀』, 『울산 역사 속의 제주민 -두모악·해녀- 울

상좌병영에 소속된 침수군[침군]은 진상용 전복 채취를 전담했던 이들로 달리 ‘침군’이라 불리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승정원일기』에는 좌수영 관할인 부산 다대포진 소속 침수군이 익사하여 홀전을 배풀었다는 기록이 나온다.¹⁴⁾ 경상좌병영과 달리 좌수영은 전복 진상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군이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¹⁵⁾ 고려하면, 침수군은 진상용 전복 채취 이외에 또 다른 군사적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침수군에게 부여된 군사적 임무가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경상좌도 군영의 합동 군사훈련인 ‘수상 습조’ 관련 기록을 통해 이들에게 부가되었던 군사적 임무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④과거 정묘년(1747) 수상 습조 때와 서평의 전선 및 경술년(1790) 수상 습조 때 울산의 전선이 풍랑을 맞아 치패하여 병선(兵船)으로 전선의 역할을 대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두 해의 예에 따라 병선으로 대행하도록 전령(傳令)하여 신칙하고, 익사한 사람은 본영에서 돈과 포(布)를 지급하여 후하게 매장 하라고 신칙하고, 물에 빠져 잃어버린 집기와 인신은 침수군을 많이 정하여 기어이 모두 찾아 건져 내도록 각 별히 엄하게 신칙할 요량입니다.¹⁶⁾

수상 습조는 매해 봄과 가을로 실시했던 경상좌도 수군의 합동 군사훈련인 수조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중 하나로, 수상에서 모의적인 전투상

산에 오다-, 울산대곡박물관, 2016, 13쪽.)

13) 송윤철, 『조선시대 제주유민의 발생과 울산 지역의 두모악』,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2018, 20쪽.

14) “以慶尙左水使狀啓 多大浦鎮等官沈水軍金雄之等渰死事 傳于朴弼達曰 令本道恤典舉行.” (『승정원일기』 1305책, 영조 46년 윤 5월 28일.)

15) 『여지도서』에 따르면 조선시대 경상도의 전복 진상지는 통제영, 좌병영, 경주부, 진주부, 동래도호부, 청하현, 연일현, 장기현, 기장현, 김해도호부, 창원대도호부, 거제부, 고성현, 칠원현, 웅천현, 남해현, 울산부, 하동부, 홍해군, 사천현 등 20곳이었다.

16) 『일성록』, 정조 20년 8월 22일.

황을 설정해 실전 군사훈련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¹⁷⁾ ④에서 수상 군사훈련 중 “전선이 풍랑을 맞아 치패”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침수군을 투입시켜 “물에 빠져 잃어버린 집기와 인신을 인양토록 했다.”라고 했다. 이에 준하면 침수군은 해난사고 시 인명구조와 기물인양 임무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④에는 침수군의 임무가 인명구조와 기물인양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적군의 전선에 은밀히 접근해 침투하거나 수중에서 전선을 전복시키는 등 수군의 전술 강화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침수군’이라는 명칭은 경상좌병영과 좌수영 등 경상좌도 군영 기록에만 나타난다. 이중 경상좌병영 소속 침수군은 수군으로서의 군사적 임무 수행과 동시에 진상용 전복 채취를 전담했다. 침수군과 같이 진상용 전복 채취를 전담했던 수군이 경상좌병영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문헌 속 ‘진상군’과 ‘채복군’ 역시 각 지역 영지(領地)에 소속되어 진상용 전복 채취를 전담했던 이들이었다.

진상군은 감영, 통영, 병영, 수영 등에 소속되어 어류나 소금 등을 조달했던 이를 물선군¹⁸⁾과 같이 각 지역 영지에 소속되어 전복 채취를 전담했던 이를 말한다.¹⁹⁾ 침수군과 달리 진상군은 전복 채취만 전담했던 이들로 영지 내 진상군의 수는 필요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이들 진상군은 진상용 전복 채취 시 채취한 전복 값을 받았다.²⁰⁾ 17세기 초 김방한의 ‘기장현구폐소(機張縣球幣疏)’에 기장민으로 본관(本官)에 소속되어

17) 『내영지』군무(軍務), 수조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국역 내영지』, 2001, 23-24쪽.)

18) 『현종실록』, 현종 5년 11월 5일.

19) “進上軍以潛水採鰓者.”(『일성록』, 정조 17년 12월 5일.)

20) 『일성록』, 정조 17년 12월 5일 기사에 의하면 진상군은 채취하는 전복의 수에 따라 인원을 뽑는데, 관에서는 이들에게 채취한 전복의 값을 지불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잠수능력에 따라 진상군 내 위계질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해녀를 잠수능력에 따라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으로 나누는 관행은 조선시대 진상군 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상용 전복 채취를 전담했던 진상군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²¹⁾ 이후로 진상군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전복 진상제도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기장에는 진상군 조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채복군은 충청도 군영에 소속되어 전복을 채취했던 수군을 말한다.²²⁾ 경상우도 군영에도 전복을 채취하는 군사가 있었으나 문헌 속에는 이들이 선군(船軍)에 소속된 이로만 나타난다.²³⁾ 이를 통해 군영에 소속되어 전복 채취를 전담했던 수군을 지칭하는 명칭이 지역에 따라 상이했음을 알 수 있는데, 경상좌도와 충청도를 제외하고는 관련 기록이 없어 침수군의 지역적 명칭이 어떠했는지는 두루 파악할 수 없다.

18세기 중엽에 작성된 『해동지도』에는 당시 기장민이 소속되어 있는 군영과 군영별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다. 살펴보면 ‘경각사제색군(京各司諸色軍) 264명’, ‘감영(監營) 소속 2명’, ‘통영(統營) 소속 48명’, ‘좌병영(左兵營) 소속 452명’, ‘우병영(右兵營) 소속 3명’, ‘좌수영(左水營) 소속 724명’, ‘부산진(釜山鎭) 소속 1명’, ‘동래진(東萊鎭) 소속 213명’ 등으로²⁴⁾ 좌수영에 소속된 이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좌병영에 소속된 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해동지도』에 기재된 당시 기장의 인구 현황을 보면, 가호 수는 총 2,889 호, 인구수는 총 10,612 명으로 그 중 남자 인구수는 4,567 명이다. 남자 인구수 대비 약 11%가 좌병영에 소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상좌병영의 군영은 ‘주진[울산]’, ‘전영장’, ‘중영장[대구]’, ‘후영장[경주]’, ‘동래진 부산 겸 수성장[동래]’, ‘가산진[칠곡]’ 등인데,²⁵⁾ 그중 기장은 동래, 양산과 더불어 ‘동래진 부산 겸 수성장’에 소속되었다. 따라서 심노승이 만났던 침수군은 좌병영 관할 ‘동래진 부산 겸

21) 김방한, 『오정일고』 ‘기장현구폐소’. (황구, 『260년 넘게 존속한 대변향의 조선수군과 주사대장』, 『기장문화』 제7호, 기장문화원, 2013, 129쪽 재인용.)

22) 『일성록』, 정조 23년 7월 15일.

23) 『성종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4일.

24) 기장문화원·한국수력원자력(주), 『기장고지도 화집』, 2018, 38-39쪽.

25) 변주승 역주, 『여지도서 35 경상도 V 여지도서 경상도』, 흐름, 2009, 77-78쪽.

수성장' 소속 침수군일 것으로 보인다. 침수군은 좌병영의 진상용 전복 채취를 전담했던 이들이나, 기장 출신 침수군은 '동래진 부산곶 수성장' 소속 방군(榜軍)으로서 기장현의 진상용 전복 채취도 겸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기장현의 진상용 전복 채취는 잠부와 진상군이 주로 전담했으나, 경상좌병영 소속 침수군도 일정정도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기장의 잠녀와 포녀

『남천일록』에 수록되어 있는 잠녀에 대한 기록은 잠부와 침수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내용은 소략하다. 먼저 관련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⑦돌아오는 길에 잠녀(潛女)가 낙지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 8문에 4개를 사서 돌아와 마을 집에 이르렀다. 국을 만들기 위해 삶으니 맛이 자못 좋았다.²⁶⁾

⑧아침에 일어나 난간의 끝에 서니 포녀(浦女)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생라(生螺) 100개, 생복(生鰻) 2개를 40문을 주고 샀다. 3궤미로 만들어 햇빛에 말려서는 멀리 있는 아허(兒許)에게 보내고, 그 나머지는 덕삼이로 하여금 깨끗하게 씻어서 얇게 자르게 하여 파기름에 그을려 내니 그 맛이 참맛으로 이런 것을 맛본 적이 없는 것이 서울 물건[음식]과 흡사하다. 일찍이 소라의 성질은 서울에서 나는 것과 다르다고 하였는데 지금 그것을 경험하니, 배어서 삶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은 전적으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리라.²⁷⁾

⑦에는 죽도 인근의 갯벌에서 낙지를 잡는 잠녀가, ⑧에는 가가호호

26) 『南遷日錄』 四, 辛酉 九月 初一日.

27) 『南遷日錄』 五, 壬戌 四月 十七日.

방문하며 소라와 전복을 파는 포녀가 등장한다. 포녀는 잠녀의 이칭²⁸⁾으로 18세기 중엽부터 문헌에 등장한다.²⁹⁾ 잠녀가 그들만의 특화된 노동방식이 강조된 명칭이면, 포녀는 그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성이 강조된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여성 나잠어업인을 지칭하는 명칭이 18세기 중엽 이후로 개인의 노동방식에서 공간성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변화되는 현상은 이 시기 종래에 비해 여성 나잠어업인의 수가 확산되었거나, 그들의 생산 경제 활동이 강화되었거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던 시대적 변화의 추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⑦,⑧에서 잠녀들은 채취한 해산물을 생산 현장에서 판매하기도 하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8세기 후반 기장에 5일장인 좌촌장과 읍내장이 형성되었음을³⁰⁾ 고려하면, 조선후기 기장 잠녀들의 상권은 바닷가나 마을을 넘어 지역의 장시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채취한 해산물을 직접 판매하며 생계를 꾸렸던 잠녀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제주도 잠녀에 대한 기록을 보면 잠녀를 주 채취물에 따라 ‘채복잠녀’와 ‘채곽잠녀’로 구분 짓는 사례가 많다.³¹⁾ 채복잠녀는 잠수 능력과 수중 어로 기술이 뛰어난 잠녀를 지칭하는 것임에 비해, 채복잠녀는 잠수 능력과 수중 어로 기술이 채복잠녀에 미치지 못하는 이를 지칭했다. 그렇다면 기장에서도 잠녀를 ‘채복잠녀’와 ‘채곽잠녀’로 구분 짓는 관행이 있었을까? 이건의 『제주도풍토기』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잠녀

28) 『승정원일기』 1025책, 영조 24년 1월 10일.

29) 김수희는 “포녀(浦女)는 잠수기술을 몸에 익힌 숙련된 잠수어민으로 수세를 납부하는 어민”, “포아(浦娥)는 전복 잡는 기술을 아직 익히지 못한 나이 어린 잠수어민”을 지칭하는 것이라 하고 19세기에 접어들면 잠녀라는 용어가 사라진 것으로 보았다. (김수희, 『조선시대 잠수어민의 활동양상』, 『탐라문화』 33호, 2008, 120쪽.) 그러나 포녀는 19세기 초엽까지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

30) 김동철, 『18세기후반~20세기 전반 기장지역의 시장권』,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1호, 2010, 103쪽.

31) 김의수 역, 『지영록』, 제주문화원, 1997, 85쪽 참조.

가 잠수로 해저의 바위에 서식하는 미역을 채취했던 것으로 나타난다.³²⁾ 그런데 기장에서는 제주도와 달리 주로 바위[곽암(藓巖)]에서 미역을 채취해왔다. 기장 해안가 일대에는 갯바위가 널리 퍼져 있다. 이곳은 남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곡각 지역에 위치해 조류가 센 곳으로, 미역 서식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그로인해 기장에서는 예로부터 곽암 중심의 미역채취가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조선후기 기장의 곽암중심의 미역채취 방식은 1909년 작성된 박수진의 ‘제2종 어업면허 청원서’에 첨부된 곽암 분포도, 그리고 미역 채취 어구와 어선 그림에 기재된 설명문에 잘 나타나 있다.³³⁾ 이를 보면 미역을 채취할 때는 어선[미역 채취선]으로 곽암으로 이동해 ‘채곽점(採藓簾: 긴 대나무 장대에 낚을 단 형태.)’으로 미역을 채취[2월에서 6월까지]하고, 미역 채취 후에는 ‘제초삽(除草鋤: 긴 장대에 직사각형의 납작한 쇠를 단 형태.)’으로 미역 포자가 잘 붙도록 곽암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10월에서 12월까지]하는 작업[기세씻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미역 채취 방식은 돌미역 채취가 중단될 때까지 그대로 이어지다가 ‘채곽점’은 곽암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어업으로 행했던 돌미역 생산이 중단 되면서 사라졌고, ‘썰개’라 불렀던 ‘제초삽’은 돌미역을 채취하고 있는 연화리 해녀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기장의 전통적인 미역 채취 방식이었던 곽암 중심의 미역 채취는 특별한 어로 기술이 없어도 가능했기에 잠녀들만의 전유물을 아니었다.³⁴⁾

32) “미역을 캐는 여자를 잠녀(潛女)라고 한다. 2월 이후부터 5월 이전까지 바다에 들어가 미역을 캔다. 그 미역을 켤 때는 소위 잠녀는 발가벗은 몸으로 바닷가 가들 널려 낚을 가지고 바다를 떠다니다가 바다 밑으로 거꾸로 들어가 미역을 캐어 끌고 나온다.” (울산대곡박물관, 앞의 책, 2016, 39쪽 재인용.)

33) 1909년 박수진의 ‘제 2종 어업면허 청원서’는 1908년 ‘어업법’의 규정대로 미역채취의 면허를 받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박수진이 작성한 청원서와 첨부 그림은 ‘해조류육종융합센터’[기장군 일광면 이천리]에 전시되어 있다.

34) 심노승은 기장 포구마을의 인상적인 풍경으로 집집마다 생선과 미역을 말리는 모습을 기록하며 이로 인해 마을 곳곳에 비린내가 진동해 코를 막고 다닐 수밖에

기장군 일광면에서는 잠수하지 않고 곽암이나 갯바위에서 해조류를 채취하는 이들을 달리 ‘바구니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물론 곽암 중심의 미역 채취를 하더라도 수심이 깊은 곳은 미역은 잠녀들이 잠수로 채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곽암 중심의 미역채취가 이루어졌던 곳에서는 잠녀들의 활동영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굳이 ‘채복잠녀’와 ‘채곽잠녀’로 구분 짓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4. 토박이 해녀와 전복 진상제도

조선시대 전복 진상제도는 태종대에 시행되어 조선말엽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정조대 이전까지는 기장현과 경상좌병영의 전복 진상제도의 시행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 이들 지역에서 진상용 전복 채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정조대에 이루어졌던 기장현과 경상좌병영 등 경상좌도 전복 진상제도의 재정립과정을 통해 대략적인 흐름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조선후기 기장의 잠부와 침수군의 삶을 엿보기 위한 일환으로 정조대 이루어졌던 기장현과 경상좌병영 전복 진상제도의 재정립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전복을 진상했던 잠부와 잠녀들은 지역에 배당된 전복의 수량을 정해진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봉진해야 했기에 그에 따른 고충이 만만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진상용 전복 채취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했으며, 종종 전복을 사사로이 취하고자 하는 관리들의 횡포도 감내해야 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이 정조대 이전부터 나타나, 정조대에 이르러서야 대안적 정책

에 없었던 난감한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南遷日錄』 一, 辛酉 三月 二二日.) 이를 통해서도 조선후기 기장의 포구마을 어민들은 누구나 미역채취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들이 수립, 시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정조는 즉위 원년에 전복 진상으로 지역민의 고충이 가중하다하여 여름과 겨울에는 전복 진상을 중단하도록³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조 17년에는 군영에 소속되었던 진상군[채복군, 침수군]의 노역이 가중하다고 하여 다른 군역을 부가하지 못하도록 했다.³⁶⁾ 이후로 지역에 따라 야기되었던 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진상용 전복의 신선도를 점검하는 관리들의 횡포가 심했던 충청도에서는 전복 진상을 일시 중단시켰고³⁷⁾, 기장 해안에 침범해 전복을 채취하는 울산 좌병영 수군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었던³⁸⁾ 경상도에서는 울산 좌병영 수군이 더 이상 기장 해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려 기장의 해녀들을 보호하기도 했다. 이에 오랫동안 울산 좌병영 수군의 침범으로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기장에서는 조정의 금령을 기념하는 비석을 기장과 울산의 경계지인 효암마을에 세웠는데, 이곳 마을 주민들은 이를 ‘전복바위’라고 불렀다.³⁹⁾ 또한, 전복 채취에 동원된 이의 노역을 줄이고,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경상좌도의 전복 진상 관행을 재정립하고 이를 법제화 했다.⁴⁰⁾ 정조 23년의 이러한 시책으로 기장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에서 전복 진상을 수행할

35)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 5월 9일.

36) 『일성록』, 정조 17년 12월 5일.

37)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 5월 9일.

38) 『정조실록』 50권, 정조 22년 11월 29일.

39) ‘효암리 월경 전복채취금령 불망비’ 칭하는 이 비석에는 “병영월경채복□관 인 조령영위혁과 만고불망비 가경사년기미원일일(兵營越境採鯧□款 因朝令永爲革罷 萬古不忘碑 嘉慶四年己未元日日).”라 새겨져 있다. 2002년 필자의 현장조사 당시에는 효암마을 뒤편 길 위의 옛 서당터 동북쪽 모서리 외관에 비스듬하게 놓여 있었다. (황경숙,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민속문화』, 세종출판사, 2002, 18-19쪽.) 현재 전복바위는 2004년 부산광역시박물관으로 이전되어 야외 전시 공간에 전시되어 있다.

40) “이같이 정식을 삼은 뒤에 조금이라도 어기면 해당 수신에게는 3년간 금고 하는 형률을 적용한다고 수교(受敎)에 기록하라고 의금부에 분부하고, 또한 해당 관읍의 계판(揭板)에도 적게 하라.”(『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 5월 22일.)

수 있게 되었다.

정조대에 재정립된 경상좌도 전복진상제도는 이후 진상 시기와 횡수는 일부 변화를 보이기도 하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전복 진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정례적인 전복 진상 품목은 물론 전복 채취 관행과 경비 조달 방식 등 큰 틀에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전복 품목의 경우 『여지도서』에는 기장현의 전복 품목이 ‘생복(生鰓)’ ‘전복(全鰓: 말린 전복)’ ‘인복(引鰓: 늘인 전복)’ 으로 나타나는데 하였는데⁴¹⁾, 『정조실록』⁴²⁾과 『각사등록』⁴³⁾에는 진상품목이 ‘생복(生鰓)’ ‘숙복(熟鰓)’ ‘반건전복(半乾全鰓)’으로 나타나며, 『경상좌병영지』 방물 공납조에는 좌병영에서는 가을에 ‘반건전복’ 15첩 5관을 한 차례 봉진한다고 하였는데⁴⁴⁾ 『순조실록』에는 ‘반건전복’을 1첩씩 7차례 봉진한 것⁴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점이 정례적으로 행한 물선진상과 비정례적으로 행한 별선진상이 달랐고, 상황에 따라 진상시기와 수량을 일부 조절하기도 했기 때문이다.⁴⁶⁾

경상좌도 전복 진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과정은 정조 23년 5월 22일 기사에 나타나고, 그 결과는 그 다음날인 5월 23일 기사에 나타난다. 이 장의 논의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 변주승 역주, 『여지도서 35 경상도 V 여지도서 경상도』, 흐름, 2009, 120쪽.

42)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 5월 22일.

43) 『각사등록』 경상좌병영계록(慶尙左兵營啓錄), 철종 2년 4월 20일.

44) 울산광역시 중구, 『역주 경상좌병영 관련 문헌 집성』, 2014, 33쪽.

45) 『순조실록』 47권, 순조 1년 1월 28일.

46) “생복(生鰓) 150개와 숙복(熟鰓) 150개를 두 달에 한 번씩 봉납한다. 가경 신유(1801)에 폐지하였다가 기묘(1819)에 복원하였다. 도광 임오(1822)에 처음 30개씩 추가로 봉납하였다. 봄에 반건조 전복 11첩 5관과 가을에 15첩 5관을 한 번씩 봉납하다가 신유(1861)에 폐하였다가 기묘(1879)에 복원하였다. 전복을 캐는 군사 30명의 일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도광 병신(1836)에 공문으로 보고하여 운영의 연름(捐廩) 1,000냥과 본영의 구폐전 700냥의 이자를 취하여 폐해를 보충하였다.” (『경상좌병영지』 방물 공납, 울산광역시 중구, 앞의 책, 33쪽.)

⑤반전복은 봉진하는 침수를 봄과 가을에 기한을 정해 각각 두 차례로 나누어 합하여 봉진하되, 해당 달[삭선] 생복, 숙복과 함께 봉진하라고 좌수영 및 통영(統營)에 분부하게 하라.⁴⁷⁾

⑥생복을 더 채취하거나 미리 채취하는 폐단은 모두 혁파하였습니다. 전복을 채취할 때 데리고 가는 군졸과 하례 및 농사를 권장하는 소작인의 우두머리 따위의 명색도 줄이고, 포구를 나가는 기한도 10일이나 15일 동안으로 정하고, 조역군(助役軍)도 혁파하였습니다. 동남쪽의 8개 포구에 대해서는, 좌수영과 동래부에서 부과하는 연호잡역(煙戶雜役)을 줄이고 침수군에 대한 공궤를 번갈아 가며 담당하게 하되, 공궤하는 비용은 제폐전리조 및 원진상가미로 마련한 다음 매년 몇대로 거두던 500여 냥은 전액을 영구히 없애도록 하였습니다.⁴⁸⁾

⑤는 삭선진상으로 ‘생복’과 ‘숙복’을 봉진하고, 춘, 추기 진상으로 ‘반전전복’을 각기 7차례 나누어 봉진했던 것을 일부 통합하고 봉진 횟수도 줄인 것이다. 봉진 횟수가 많으면 그에 따른 행정적 소모가 많고 경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춘, 추기에 진상해야 될 전복의 총수량은 그대로 하되, 그것을 2차례로 나누어 합하고 봉진 시기를 월령으로 이루어지는 삭선 진상 시기에 맞춰 함께 봉진하도록 한 것이다.

⑥는 진상용 전복 채취 관행, 이에 소요되는 경비 조달 방식 등을 개선한 것이다. 개선된 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복 채취시기를 제한하지 않았던 것을 매회 10~15일간으로 제한했다. 이는 전복 채취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관리들이 전복 진상을 빌미로 수시로 침수군을 동원해 전복을 채취하게 하여 전복을 착복하는 폐단과 이로 인해 침수군이 과중한 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고충]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침수군의 전복 채취 시 동행했던 ‘군졸’ ‘하예’ ‘권농 소작인 우두머리’ ‘조역군’ 수를 대폭 감소시켰다.

47)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 5월 22일.

48)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 5월 22일.

전복 채취 시에는 이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로 참여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적지 않았기에 채복과 무관한 이의 참석을 배제시켜 소요 경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셋째, 전복 채복 시 소요되는 경비를 종래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거두어 충당했던 것을 동래부와 좌수영에서 번갈아 부담하도록 하되, 경비 조달 방식을 ‘제폐전리조(除弊錢利條)’와 ‘원진상가미(元進上價米)’로 제한했다. 이는 전복 진상지 지역주민의 부담을 들게 하면서 동시에 지역적 형평성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위 개선방안들은 전반적으로 지역의 전복 진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관료들의⁴⁹⁾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그간 침수군이 겪어야 했던 고충을 감하고자 하는 배려도 함께 고려한 것이다. 그로인해 침수군들은 전대에 비해 전복 채취 노역에 동원되는 기간이 짧아지고 조역군이 배제되어 노역의 강도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담은 있었으나,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가 진상용 전복 채취로 제한되면서 상부의 착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적 명분과 달리 실제 군영에 소속되어 있었던 침수군은 상부 조직의 명령에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③과 같이 진상용 전복 채취 외에도 사사로이 동원되어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로 고충을 겪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기장에 국한되지 않았다. 심원열의 ‘채복설’에도 울산의 이교(吏校)가 사포에게 전복을 대접하기 위해 파도가 세어 채복이 불가능하다는 좌병영 소속 침수군을 강제로 채복하게 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⁵⁰⁾

앞 장의 인용문 ①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잠부들도 진상군이나 침

49) 전복채취를 관리 감독하는 ‘감채장교(監採將校)’, (『각사등록』 경상좌병영계록, 철종 원년.) 전복 수송과 봉진을 전담했던 ‘배지군관(『영사례』)이 있었다.

50) 「<송수환의 이어쓰는 울산사에세이> 왕실 진상 위해 알몸으로 잠수... 울산 어부들 목숨 건 노동」, 『울산일보』, 2021.08.27. (<http://www.uls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98>, 2022. 5월 1일 검색.)

수군과 같이 진상용 전복 채취 노역에도 동원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①에 ‘갯가에 전복 채취가 이루어지니 놀러가자.’란 구절이 있다. 잠부는 물질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로 통상적으로 채취하고자 하는 해산물과 물때를 고려해 조업 기간이 정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잠부들의 채복(採鰭)시기를 미리 알고 구경 간다는 것은 당시 잠부들에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정례적으로 전복을 채취했던 관행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한 기간 내 잠부들이 무리지어 정례적으로 전복을 채취했던 관행은 기장현의 전복진상제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각 지역에 따라 전복 진상과 관련된 제도와 관행들이 상이하게 전개되는데, 정조대의 관련 기사에 의하면 기장을 포함한 경상좌도의 경우, 종래에는 진상용 전복 채취시기와 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가 정조 23년을 기점으로 진상용 전복을 채취하는 기간을 봉진 전 10-15일 내로 제한되었다.⁵¹⁾ 기장현에서는 삭선진상과 춘,추기(秋期)진상이 있었다. 이 중 추기 진상은 9월부터 시작되었다. ①의 기록이 9월 1일이라는 점과 9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잠부들의 채복은 추기에 봉진하는 전복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이날 잠부의 채복은 ②와 달리 진상용 전복을 채취해야 했기 때문에 전복을 사겠다는 심노송 일행의 제안을 난감하게 여기고 판매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시대 전복진상지에서는 진상용 전복 채취가 이루어지는 동안 이를 관리 감독하는 감채장교(監採將校)를 파견하는 것이 관례였다.⁵²⁾ 17세기 무지포에 설치되었던 주사와 기장현의 전복 진상과의 관련성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②에서 주사의 병선 감관이 사사로이 잠부들을 동원해 전복을 채취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주사의 군관들도 기장현의 전복 진상에 일정정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51)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 5월 22일.

52) 『각사등록』 경상좌병영계록, 철종 원년.

한편, 조선시대 내륙 연안의 토박이 해녀들은 지역에 따라 진상용 전복 채취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⑨순풍이 불자 배를 띄워 평이도에 이르렀다. 온 포구에서 해녀(海女)들이 전복 따는 것을 구경했다. 그녀들이 벌거벗은 몸(裸身)을 바 하나에 의지하고 깊은 물속을 자맥질(倒入)했다. 마치 개구리가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고 물오리가 물속에서 헤엄쳐 자오는 형상이라,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여름철이 되어 날씨가 맑고 화창한데도 오히려 불을 피워 언 몸을 녹히는데, 하물며 눈이 쌓이고 몹시 추운데도 관리들은 독촉하며 채찍질로 流血이 낭자한데서야.⁵³⁾

⑩저희들이 거주하는 섬은 캐어 들인 생전복을 진상하는 곳입니다. 올해 5월에 저희들 39명이 전복을 캐기 위하여 선척을 가지고 바야흐로 파소도(巴所島)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웃에 사는 포녀(浦女) 편소사(片召史) 등 69명이 또한 대합조개를 캔다고 하여 한 배에 같이 타고 파소도로 출발하여 갔습니다.⁵⁴⁾

⑨는 위백규가 평이도[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매를 맞으면서 전복을 채취하는 포녀를 목격한 내용이고, ⑩는 충청도감영 소속 채복군(採鰓軍)이 전복 채취를 위해 파소도로 가는 길에 대합조개를 캐러가는 포녀들을 배[전복 진상을 했던 감영과 군영에는 진상채복선(進上採鰓船)이 따로 있었다.⁵⁵⁾]에 태워 함께 갔다는 내용이다. 위 내용을 보면 전라도에서는 전복 채취에 잠녀들이 대거 동원되었으나, 충청도에서는 잠녀들이 동원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충청감

53) 위백규의 ‘금당도선유기’는 다음의 논문에서 재인용함. (고창석, 『평일도 ‘무례꾼’(해녀)들의 조직과 기술』, 『도서문화』 제10집,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1992, 25쪽 재인용.)

54) 『각사등록』 충청감영계록, 헌종 11년 9월 28일.

55) 『만기요람』 재용편 3, 해세(海稅) 어(魚)·염(鹽)·선(船).

영에는 경상좌병영의 침수군과 같은 채복군이 있었다는 점, 전복 진상품목이 상대적으로 단출했던 점 등이 주요 요인이었을 것으로 본다. 관련 문헌자료가 없어 전라도와 충청도의 전복 진상 수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 지역은 전복 진상 품목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전라도는 전복 진상지 중 제주도⁵⁶⁾ 다음으로 가공 품목이 많았던 곳으로 진상 품목은 ‘생복’, ‘건숙복[삶아서 말린 전복]’, ‘건전복[말린 전복]’, ‘인복[전복을 납작하게 펴서 말린 것]’, ‘원전복[크고 둥근 형태의 전복]’, ‘건원복[원전복을 말린 것]’ 등이다.⁵⁷⁾ 반면, 충청도의 진상 품목은 ‘갑인전복[껍데기가 있는 생복]’과 ‘생복’ 뿐이었다.

전라도의 진상 품목 중 ‘원전복’을 비롯해 가공 품목인 ‘건원복’, ‘인복’은 ‘크고 둥근 형태의 전복’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이 지역에서는 모양이 둥글고 크기가 큰 전복을 수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규격에 맞는 전복 수급을 위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원되어야 했기에 잡녀들까지 전복 채취에 동원되었을 것이나, 충청도는 가공하지 않은 생전복만 진상했던 곳으로 감영 영내 잡녀들은 전복 채취에 동원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충청도에서는 전복의 신선도가 중요했기에 관에서 전복 신선도를 트집 잡는 일로 고충을 겪었다.⁵⁸⁾

기장에는 진상용 전복 채취를 전담했던 경상좌병영 소속 침수군과 기장현 소속 진상군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전복 진상 품목이 ‘생복’, ‘숙복’, ‘반건전복’으로 가공 방식이 비교적 간단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장의 잡녀들도 충청도와 같이 진상용 전복 채취 노역에 동원되지 않았을

56) 이원진의 [탐라지] 공헌 조에 월령 삭선진상 품목이 나타나 있다. 그중 전복 진상 품목과 수량을 살펴보면 2월에는 추복 265첩, 조복 265첩, 인복 95숙(10마리가 1숙). 3월에는 추복 340첩, 인복 85숙. 4월에는 추복 각 760첩, 인복 각 170숙. 6월에는 추복 1208첩, 인복 170숙. 7월에는 추복 680첩과 인복 170숙. 8월에는 추복 680첩, 인복 170숙. 9월에는 추복 425첩, 인복 85숙이다. (울산대곡박물관, 위의 책, 2016, 41쪽.)

57) 강영삼, 『조선시대 전복 진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0-21쪽.

58)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 5월 9일.

것으로 보인다.

기장지역 토박이 해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자료는 조선후기에 나타나나, 전복 진상제도가 조선 초엽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실에 준하면, 심노승의 『남천일록』에 나타나는 조선후기 기장 토박이 해녀의 생산, 조직 활동은 조선 초기에 형성되어 조선 후기까지 전승 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5. 토박이 해녀의 잠수 어로

기장 일대는 물론 해운대 일대 해안지역에서는 해산물과 해조류를 ‘무레끼[물에끼]’, 해산물과 해조류를 채취하는 일을 ‘무레끼[물에끼] 한다.’, ‘무레끼[물에끼] 하는 이’를 ‘무레끼[물에끼] 하는 사람’이라고 칭한다. 무레끼[물에끼]는 해산물과 해조류를 바다의 소유물이라 하여 ‘물의 것’이라 칭했던 것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무레끼[물에끼]는 ‘물의 것’의 경상도식 발음이라 할 수 있다.

서남해안 일대에서도 해산물과 해조류를 ‘무레끼’라고 지칭한다. 따라서 ‘무레끼’는 내륙 토박이 해녀의 공통된 언어문화라 할 수 있는데, 서남해안 일대에서는 ‘무레끼 하는 이’를 ‘무레꾼’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동남해안 일대에서는 ‘무레끼 하는 사람’이외 ‘무레꾼’이란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⁵⁹⁾

내륙 연안의 토박이 해녀는 근, 현대 제주도 해녀들이 대거 유입되면

59)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장 해안일대와 해운대 해안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녀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산물, 해조류, 해녀를 지칭하는 용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무레끼[물에끼] 용례 외 ‘무레꾼’이라는 용례는 조사되지 않았다. 동남해안 일대에서 해녀라는 명칭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해녀를 지칭하는 토박이 언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제주도 해녀들의 영향으로 토박이 해녀들의 ‘무레끼 하는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⁶⁰⁾ 그런데, 정작 동남해안 일대 토박이 해녀들의 ‘무레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관련 문헌자료에 의하면 내륙 연안의 토박이 해녀는 신라시대로부터 조선후기까지 제주도 해녀와 달리 오랫동안 ‘생명줄’을 사용해 물질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 문헌자료를 살펴본다.

⑪신라국의 깊은 바다 속에서 난다. 얹이 마치 수조(水藻)와 같이 생겼는데 크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海人)들이 줄을 허리에 매고 물속으로 들어가 채취한다.⁶¹⁾

⑫매월 상하현에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닷가의 단호

60) “여계(연화리) 내가 제일 먼저 왔다. 결혼은 제주도에서 하고 여계는 혼자 나왔고, 해녀들 모집 했을 때 나왔는데, 오니까 본토박이도 물에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내가 여계 나올 때 물에끼 하는 이가 서넛 있었다. 그때는 같이 물질했다. 옛날에는 어장이 따로 없었으니까 같이 하는데 육지해녀들은 기술이 없었어. 그 사람들이 우리 못 따라가지. 그 사람들은 그냥 살짝 살짝 조금씩 하는 정도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배와가 잘 했다 아이가.” [김○례 구술(여, 1926, 연화리), 2020. 05.07. 면담조사.]

“제주도 해녀들 오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몇 사람이 했다. 심하게는 안 해도 조금씩 마 하는 사람들이가 마 대여섯이 있었다. 그때는 우뚝가사리, 도박 같은 거, 진두바리 하고 도박은 고아가지고 풀로 쓰는 거라. 성게 같은 거는 그때만 해도 짜다라 잡는 거 없다. 돈이 안 되니까. 물에끼 할 때 처음에 옷이라고 뭐 있나? 제주도 해녀들이 입는 거로 보고 본을 따가기고 옷을 만들어가 입었지. 인자 물에 들어갈 때 입고 나와가 말루고, 벗어가 말루따나(말릴 동안) 딴 거 입고, 이래 이래 하는 거라. 불 피우고 하는 거는 제주도 해녀들 하는 거 보고만 들어가 거기서 몸도 말리고 한다. 그전에는 집에서 옷을 벗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랬지. 잠박질이야 물가에 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데, 깊은 데는 못 가니까 그때 여 동네고 저 동네고 제주도 해녀들한테 배와가 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자 구술(여, 1942, 두호마을), 2021. 01.05. 면담조사.]

61) “大葉藻生新羅國深海中 葉如水藻人而大 海人以繩繫腰 沒水取之 五月以後 有大魚傷人 不可取也.” (『海東歷史』 卷二六 物産志一 藻條.)

에서는 부녀자들 이 鰻을 채취하는데, 이것을 생업으로 삼는다. 四五十人이 무리를 지어 가서 의상을 벗는데, 다만, 막대기를 발밑에 맨다. 뒤 이어 큰 바가지를 가지고 승냥을 그 밑에 달아매고, 다시 숙마로써 꼬은 줄, 길이는 數十把 되는 것으로서, 그 한쪽은 바가지를 매고 다른 한쪽은 허리에 둘러 감는다. 허리 밑에는 또 작은 승냥 한 개를 차고, 오른손에는 자루가 달린 송곳을 잡는다.(자루의 길이는 一尺남짓으로 하고, 그 송곳은 구부러 乙字모양의 목을 만드는데, 목 아래의 길이는 八九寸이 되게 한다.) - 중략 - 한 마리의 鰻을 채취할 때마다 허리 밑의 소냥에 담고 六七마리가 되어 많아져 소냥이 무거워지면, 허리에 둘러 감은 굵은 줄을 꼭 붙잡고 떠올라 수면으로 나와서, 빨리 鰻을 바가지 밑에 매 달린 대냥에 옮기고, 다시 해엄쳐 물속으로 들어간다.⁶²⁾

⑬채복자는 긴 새끼줄 끝에 물에 뜨는 가벼운 나무껍질 여럿을 하나로 묶어 띄운다. 다른 한쪽 끝은 허리에 묶고 작은 칼을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 전복을 캔다. 숨이 차면 물위로 솟아올라 나무껍질에 가슴을 대고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니 매우 위험한 일이다.⁶³⁾

위 문헌자료에 주목할 대목 토박이 해녀는 잠수 시 허리에 줄[숙마나 짚으로 만든]을 매단다는 것이다.⁶⁴⁾ ⑪에는 줄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⑫과 ⑬에는 줄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줄은 토박이 해녀와 태왁을 연결해 조업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종의 보조 장치였다. 조업 시에는 잠부[잠녀]와 태왁이 조류에 휩쓸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생명줄’이자 ‘땃줄’이며, 조업 후에는 해산물로 무게가 실린 상태에서 보다 용이하게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62) 서유구, 김명년 역, 『전어지』, 한국어촌어항협회, 2007, 103~104쪽.

63) “又有採鰻者 以長繩一頭 束輕浮木皮數握許 以餘繩拖長而裸體結於腰 持小刀入水摘取 乃浮水引所束木皮 據胸休息 又入水摘之 見甚危怖 人之所以謀生 其道何限 而此則以死道資生 是豈欲應人之求 乃自爲生計也.” (『守宗齋集』卷之八, 雜著 南遊日記)

64) 본문의 ⑫에 또 다른 보조 장치로 지금의 오리발 기능을 하는 ‘발밑에 매단 나무판’이 나타나고, ⑬에 태왁을 만드는 소재와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 다른 문헌에서 교차 확인할 수 없어 논의에서 제외한다.

‘도움줄’이었다.

토박이 해녀가 도움줄을 사용해 잠수하는 방식은 일본의 ‘가치도(徒人) 아마’와 유사하다. 일본 아다는 조업 방식에 따라 ‘가치도(徒人) 아마’와 ‘후나도(丹人) 아마’로 나뉜다. 이들 모두 잠수 시 아마의 허리에 줄을 매는데, ‘가치도 아마’는 아마와 ‘부이[오케]’를 줄로 연결해 조업 하며, ‘후나도 아마’는 아마가 수면으로 떠오를 때 배위의 조력자[주로 아마의 남편]가 아마의 허리에 매단 줄을 잡아당겨 주는 방식이다.⁶⁵⁾ 이러한 유사성은 토박이 해녀와 일본 아마와의 문화적 수수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단초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개진되었으면 한다.

반면, 조선시대 제주도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내륙 연안 토박이 해녀의 물질 방식과 달리 생명줄[도움줄] 없이도 잠수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탐라순력도』⁶⁶⁾의 잠녀 그림이나 김춘택의 『북한거사집』중 ‘채복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⑭가슴에 박(태왁)을 붙이고 끈으로 찬 주머니를 태왁에 묶습니다. 이 전에 잡았던 전복껍질을 주머니에 채우고 손에는 쇠꼬챙이(빗창)을 잡고 이리저리 헤엄치다가 마음 내키면 물속에 잠깁니다. 물 밑에 이르러 한 손으로 바윗돌을 끌어보면 전복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복이 돌에 붙어 있는 것은 단단해서 껍데기로 엮으려 있어 딱 붙기 때문에 즉시 딸 수가 없게 되어버리므로 그 색깔이 검어서 돌과 혼동하게 됩니다. 바로 묶은 껍데기를 올려다 놓아 그곳을 알 수 있게 하면 그 앞면이 빛을 받아 물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⁶⁷⁾

65) 제주해녀박물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제주해녀와 일본아마 비교 연구』, 57-60쪽. 일본 아미를 물질 방식에 따라 각기 ‘가타 아마’와 ‘쇼우 아마’라 달리 칭하는데, 이중 가타 아다는 부포인 오케를 사용해 물질하기에 달리 ‘오케 아마’라고도 칭한다고 한다.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288-289쪽.)

66) 숙종 28년(1702) 병마수군절제사 겸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이형상이 김남길(화공)에게 그리게 한 그림으로 취병담에서의 뱃놀이 모습을 담은 ‘병담범주(屏潭泛舟)’편 우측에 용두암 앞에서 물질하는 해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67) 김수희, 『조선시대 잠수어민의 활동양상- 제주 잠수어민을 중심으로』, 『탐라문

위 내용에 따르면 조선후기 제주도 해녀들은 태왁에 채취한 해산물을 담은 주머니[망사리]만 달았을 뿐 생명줄을 달리 연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제주도에서도 조류가 센 곳에서 조업할 때에는 태왁이 조류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태왁을 고정시키는 ‘돌땃’⁶⁸⁾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잠수 기술이 뛰어났던 상군들은 조류가 센 곳에서도 보조 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했다.

생명줄 사용 여부는 우리나라 해녀의 잠수 어로 기술의 변화과정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선후기 제주도 해녀의 잠수 관련 기록물에서는 생명줄 사용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제주도 해녀의 생명줄 사용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이 시기 이미 제주도 해녀는 생명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잠수 어로 기술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후기 잠수 기술은 제주도 해녀가 내륙 연안의 토박이 해녀보다 앞섰음을 알 수 있다.

잠수 기술뿐만 아니라 수중 어로 기술에서도 내륙 연안과 제주도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⑫,⑬에 전복 채취 어구로 ‘호미 형태의 송곳’과 ‘작은 칼’이 나타난다. 이중 ‘호미 형태의 송곳’은 제주도의 ‘호맹이’와 유사한데, 호맹이는 찍어 올리는 어구로 제주도에서는 성게, 문어, 오분자기 등을 채취할 때만 사용한다. 대신 전복을 채취할 때에는 ⑭와 같이 전복 채취 전용 어구인 ‘빗창’[세로가 간 직사각형으로 한쪽 끝은 끝이 넓고 모서리를 둥글며, 다른 한쪽은 끈을 달 수 있도록 말아 올린 형태다.]을 사용한다. 외부의 자극이 가해지면 오므라드는 전복의 생태를 고려하면 끝이 날카로운 호맹이나 칼로 채취할 경우 전복이 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도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제주도에서는 전복을 상하

화』 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08, 110쪽 재인용.

68) 제주도 해녀들은 조류가 센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태왁이 조류에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태왁에 매단 망사리에 어음[넝쿨나무로 둥글게 만든]을 달고 어음에 연결한 돌땃[돌을 달아 매단 줄]을 바다 속 바위나 해초에 고정시켜 조업한다. (강영수, 『바다에서 삶을 캐는 해녀』, 정은출판, 2016, 147-148쪽 참조.)

지 않게 하면서도 손쉽게 채취할 수 있는 전복 채취 어구인 ‘빚창’을 고안한 것이다. 또한 전복깍데기[제주도에서는 ‘본조갱이’라고 칭하며 허리 끈에 끼워 잠수한다.]를 활용해 전복 채취의 효율성도 높였다.

조선시대 제주도 해녀는 잠수 기술과 어로 기술 모두 내륙 연안의 토박이 해녀보다 한 발 앞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편차는 19세기 말엽부터 제주도 출가해녀들이 대거 내륙 연안으로 진출하면서 그 영향으로 서서히 줄기 시작해 지금과 같이 토박이 해녀와 제주도 해녀의 잠수 어로문화가 동질화된 것으로 보인다.

6. 나가기

『본초습유』와 『남천일록』을 통해서 기장의 토박이 해녀는 신라시대로부터 조선후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사료가 많지 않아 기장의 토박이 해녀문화의 시대적 변화양상을 가늠해 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조선시대 기장의 토박이 해녀에 대한 문헌자료는 필자가 아는 한 『남천일록』이 유일 하다. 이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기장의 토박이 해녀문화를 살펴보면 우선, 토박이 해녀는 성별[잠부와 잠녀]에 따라 생산 활동 영역이 일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모두 채취한 해산물로 생계를 꾸리는 일상적인 삶은 동일했지만, 이중 잠부는 기장의 진상용 전복 채취를 전담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제주도나 서남해안과 달리 기장에서는 잠녀가 진상용 전복 채취노역에 동원되지 않았던 이유는 첫째, 이들 지역에서 진상하는 전복 품목이 단출할 뿐만 아니라 진상 수량이 적었고, 둘째, 전복 진상이 수군 조직[진상군과 침수군]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제주도와 서남해안 잠녀들의 주요 생산 활동 중 하나는 미역 채취였다. 미역 채취를 전담하는 이를 달리 ‘채곽잠녀’라 칭했다. 그

러나 기장에서는 연안에 갯바위가 널리 분포되어있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곽압 중심의 미역 채취가 주를 이루면서 미역 채취를 전담하는 ‘채 곽잡녀’가 따로 없었다. 굳이 잠수를 하지 않아도 미역 채취가 용이했는데, 기장지역에서는 잠수하지 않고 미역이나 해조류를 채취하는 이를 달리 ‘바구니꾼’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기장지역 토박이 해녀의 잠수 어로 방식이 언급되어 있는 문헌자료는 전무하나, 관련 문헌자료를 통해 내륙 연안 토박이 해녀의 잠수 어로 방식의 공통점을 도출해 볼 수 있었다. 이에 준한다면 조선후기 내륙 연안의 토박이 해녀의 잠수 기술과 수중 어로 기술은 동시대 제주도 해녀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토박이 해녀는 맨몸으로도 잠수하는 제주도 해녀와 달리 도움줄[생명줄]을 이용해 잠수했으며, 조업에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채취 방식도 제주도 해녀에 비해 단순 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 지역에 유입된 제주도 해녀의 영향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해 지금과 같이 상호 동질화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현재 기장지역 토박이 해녀는 제주도 출가해녀를 모태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신라시대로부터 조선후기까지 이어져왔던 이 지역 토박이 해녀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역점으로 두었다. 그로인해 조선시대 기장의 토박이 해녀가 근,현대를 거쳐 어떠한 변화과정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논의는 담아내지 못했다. 1889년 10월 한일통어(通漁)장정 체결을 기점으로 식민지 어업 정책이 본격화되고, 일본 어민이 대거 진출[특히 잠수기어업]하여 우리나라 해안 일대가 수탈의 대상이 되면서, 어민들은 물론 토박이 해녀들도 그 존립 기반을 점차 상실해 간 것으로 나타난다. 기장지역 토박이 해녀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옹골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근, 현대 야기되었던 토박이 해녀의 전승 기반의 변화과정과 그 요인을 밝히는 논의도 함께 개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각사등록』, 『남천일록』, 『여지도서』, 『만기요람』, 『수종재집』, 『순조실록』, 『승정원일기』, 『여지도서』, 『일성록』, 『자산어보』, 『정조실록』, 『헌종실록』, 『해동역사』

2. 논문 및 단행본

강영수, 『바다에서 삶을 캐는 해녀』, 서울: 정은출판, 2016.

기장문화원·한국수력원자력(주), 『기장고지도 화집』, 부산: 대훈기획, 2018.

김명년 역, 『전어지』, 한국어촌어항협회, 2007.

김의수 역, 『지영록』, 제주문화원, 1997.

문무병·좌혜경, 『일본 아마의 민속』,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서울: 민속원, 2006.

변주승 역주, 『여지도서 35, 경상도 V 여지도서 경상도』, 전북: 흐름, 2009.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국역 내영지』, 부산: 세한기획, 2001.

울산광역시 중구, 『역주 경상좌병영 관련 문헌 집성』, 울산: 애드버전, 2014.

울산대곡박물관, 『울산 역사속의 제주민 -두모악·해녀 울산에 오다-』, 울산: ㈜디자인 백미, 2016.

제주해녀박물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제주해녀와 일본아마 비교연구』, 2021.

황경숙,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민속문화』, 부산: 세종출판사, 2002.

- 강영삼, 『조선시대 전복 진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고창석, 『평일도 무례꾼(해녀)들의 조직과 기술』, 『도서문화』 제10집,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1992, 97-122쪽.
- 김동철, 『18세기 후반~20세기 전반 기장지역의 시장권』,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1호, 역사문화학회, 2010, 85-124쪽.
- 김수희, 『조선시대 잠수어민의 활동양상』, 『탐라문화』 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105-138쪽.
- 송윤철, 『조선시대 제주유민의 발생과 울산 지역의 두모악』, 울산대 석사학위 논문, 2018.
- 안미정, 『해방전후 제주 잠수(해녀)들의 부산 정착의 사회적 고찰』, 『탐라문화』 제37호, 2010. 437-479쪽.
- 양정필, 『조선전기 정부의 제주도 출륙 포작인 인식과 정책』, 『탐라문화』 제67호, 2021. 201-234쪽.
- 황구, 『260년 넘게 존속한 대변항의 조선수군과 주사대장』, 『기장문화』 제7호, 기장문화원, 2013, 120-137쪽.

3. 기타자료

- 『송수환의 이어쓰는 울산史에세이, 왕실 진상 위해 알몸으로 잠수... 울산 어부들 목숨 건 노동』, 『울산일보』 2021.08.27., (<http://www.uls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98>, 2022. 5.1 검색)

<Abstract>

A Study on Tradition and Locality of
Land-born Haenyeo in Gijang area
- Focusing on the late Joseon Dynasty

Whang, Kyung-Suk*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eal the history of land-born haenyeo who are active in Gijang, Busan.

Therefore, we analyzed Namcheon Ilrok and historical books by Sim No-Su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rom the Silla Dynasty to the Joseon Dynasty, there were Jambu and Jamnyeo in Gijang.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ir production activities were the same as those of the current haenyeo. In the Joseon Dynasty, there was a system to offer abalone to the royal family. At Gijang, abalones were collected from Jambu [a man who gathers seafood by diving], Chimsu-gun, and Jinsang-gun to the royal family. However, Jamnyeo [a woman who gathers seafood by diving] did not participate. In Gijang, there are many rocks on the beach. So, the people there collected seaweed from Gaetbawi. Jamnyeo did not collect seaweed much. In the Joseon Dynasty, the method of diving by land-born haenyeo was different from that of Jeju-do haenyeo. People from the land tied a rope to their body to ensure safety. However, the Jeju-do haenyeo dived without tying the rope. The diving skills of the Jeju-do haenyeo were superior to those of

* Busan Metropolitan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land-based haenyeo.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Jeju-do haenyeo advanced inland. At that time, the haenyeo from the land learned diving techniques from the haenyeo in Jeju Island. So, the current land-born haenyeo dive in the same way as the Jeju-do haenyeo.

Key Words: land-born haenyeo, Jambu, Submerged, Chaebok-gun, Jamnyeo, Ponyeo, abalone, chaebok jamnyeo, chaewak jamnyeo, help rope

■ 논문접수 : 2022년 06월 30일

■ 심사완료 : 2022년 08월 22일

■ 게재확정 : 2022년 08월 22일

